

중국 농촌의 자살 현상에 관한 의료인류학적 분석: 구조적 폭력과 체현 개념을 중심으로

이현정*

〈국문초록〉

중국의 자살은 거대한 인구 규모 뿐 아니라 독특한 성별·지역별 자살률 패턴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본 연구는 그동안 정신의학적 혹은 사회학적 접근 방식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중국 자살률의 독특한 패턴의 원인을 추가적으로 파악하고자 중국 하북성 마을에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다양한 민족지적 연구방법—참여관찰,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생애이야기 수집, 초점 집단 연구, 문헌 분석—을 사용하여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연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구조적 폭력’ 및 ‘체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중국 농촌 여성들의 높은 자살률은 빈곤 및 가부장적 억압이 구조적 폭력으로 작용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여성의 자살 행위를 자주 접해 온 농촌의 여성들이 문화적 체현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살을 특정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대응 방식으로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주제어: 자살, 중국, 젠더, 인류학, 구조적 폭력, 체현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교신저자 : 이현정(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전 화 : 02-880-9062 / e-mail: anthrolee@gmail.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990년대 국가의 자살률이 처음 세계에 공개된 이후, 중국의 자살 문제는 그 규모 뿐 아니라 독특한 성별·지역별 패턴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어왔다.¹⁾ 전 세계 인구의 21%가 거주하고 있는 중국에서 자살자는 무려 전 세계의 44%를 차지하고 있다(Law and Liu, 2008). 조사 방법에 따라 중국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13.9~28.7명으로 조금씩 다르게 보고되지만, 어느 경우든지 세계 평균(10만 명당 10.7명)보다는 꽤 높은 수치이다(Phillips et al., 2002; Qin and Mortensen, 2001; He and Lester, 1997). 또한 중국의 자살률은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도시민보다는 농민의 자살률이 더 높다는 예외적인 성별·지역별 패턴을 드러낸다. 19세기 말 뒤르켐의 『자살론』 이후, 자살 연구자들은 역사적·지역적으로 거의 언제나 남성이 여성보다 그리고 도시민이 농민보다 자살률이 높다는 역학적 사실을 공유해왔다(Durkheim, 1979).²⁾ 그러나 중국의 경우 정반대로 농촌이 도시보다 자살률이 높으며,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률이 높다. 그 결과, 중국 사회에서 ‘농촌 여성’은 지역 및 성별 범주 상 자살 위험에 가장 심하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이다. 신뢰할만한 역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여성의 자살률은 38.8로 각각 농촌 남성(27.5), 도시 여성(10.7), 도시 남성(9.9)보다 훨씬 높다(Phillips et al., 2002).

중국의 자살 현상이 나타내는 특이한 통계학적 특징으로 인해,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시해왔다. 먼저, 자살을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원인으로 바라보는 정신의학적 패러다임을 따르는 학자들은 중국의 농민 여성들이 보고하는 높은 자살률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자살 직전에 경험하는 정신질환, 특히 우울증의 문제로 바라본다(예컨대, Phillips et al., 2002). 이러한 설명은 서구의 발전된 의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해 있으면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산업화된 국가의 자

1) 1990년대까지 중국 정부는 자살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냉전 시기의 외교적 적대 관계 속에서 중국 정부는 혹시라도 중국의 자살률이 사회주의권을 비난하는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러한 역학적 ‘사실’의 발견은 19세기 이후 사회과학자들이 여성과 농민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편견’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 이에 관해서는 Kushner(1985, 1993) 참조.

살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확보해 왔다.

반면,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정신의학적인 패러다임이 개개인의 특성에만 주목하고 중국 사회가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간과함으로써, 여전히 왜 중국이 독특한 자살률 패턴을 보이는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예컨대, Yip et al., 2005). 뒤르켐의 『자살론』에서 제시한 사회학적 패러다임에 동의하는 이들에 따르면, 한 사회의 자살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그 사회의 특성을 드러내는 지표이다(Durkheim, 1979). 따라서 중국의 농민 여성이 보이는 높은 자살률은 중국이 최근 겪고 있는 아노미적 상황—다시 말해,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사회경제적인 불평등 혹은 정치적인 억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신의학적 혹은 사회학적인 설명 방식은 상호보완적이며, 중국의 자살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만으로는 중국의 자살 현상이 충분히 이해되기 힘든데, 그 까닭은 무엇보다 ‘자살’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즉, 자살은 (정신의학적 접근 방식이 주장하듯) 정신병리학적 ‘증상’ 내지 ‘결과’이기도 하고, (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강조하듯) ‘죽음’의 한 가지 방식이자 숫자로 표현되는 사회학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사회에서 이 행위에 대해 부여하는 특수한 ‘의미’가 관여하고 그러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선택’이 요구되는 인간의 주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행위(Handeln)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Verhalten)에 주관적인 의미를 결부시킬 경우의 그리고 그러한 한에서의 인간의 행동”이다. 그리고 만일 어떠한 행위가 결부된 의미에 따라 타인의 행동에 관련되거나 그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한 그 행위는 사회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Weber, 1976). 자살은 맥락에 따라 개인적 행동이기도 하고 사회적 행동일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 그 행동은 스스로의 신체에 가해지며 (타인/사회에 의해 실제로 이해되지 않을 수 있는) 개인적인 의미부여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는 행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행동이 (결국 타인/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방식으로) 사회적 의미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베버의 관점에 근거해서 판단해 본다면, 자살이 인간의 ‘행위’로 간주되는 한 엄격히 말해 그 행위는 순수하게 개인적일 수는 없다. ‘의미’란 설령 개인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자유자재로 선택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어디까지나 그가 속한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한정된 문화적 가능성들(즉, 사회적 의미망) 내에서 선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Geertz, 1973; Bourdieu, 1977).

이와 같은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중국 자살률의 독특한 성별·지역별 패턴에 대한 기존의 설명을 보완하고자 중국의 농촌 여성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과정을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국 농촌의 일상 생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관찰과 실제로 자살을 시도³⁾한 적이 있는 농민 여성 개인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과정 속에서 농민 여성 개인이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응 방식으로 인식하고 실천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제한된 지면 속에서 효과적인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인류학적인 개념—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과 체현(embodiment)—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중국의 자살 현상에 관해 정신의학적 내지 사회학적 접근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부분을 인류학적 현장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나아가 두 가지 이론적 개념을 통해서 그러한 현상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시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이 보고해 온 독특한 성별·지역별 패턴의 원인을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개념

1. 구조적 폭력(structural violence)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기원을 가진다. 학계에서 구조적 폭력은 1969년 노르웨이의 사회학자 조한 갈통(Johan Galtung)에 의해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그

3) 자살 연구자들에게 자살(suicide)과 자살시도(attempted suicide)는 종종 상이한 의도와 수단이 관여하는 구별된 행위로 간주되어 왔으나, 연구자의 관찰에 따르면 중국 농촌의 맥락에서 자살과 자살시도의 구분은 그 경계가 매우 모호하다. 두 행위 사이의 구분은 오로지 자살시도 이후에 얼마나 빨리 행위자가 발견되고 후속 조치가 취해지는가하는 주변의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 결정되며, 진심으로 죽고자 하는 의도나 사용하는 수단(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마을들의 경우, 대개 농약이나 두부제조에 사용되는 간수)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중국 농촌에서의 자살시도는 딱히 목숨을 끊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 위협이나 다른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자살극(parasuicidal action)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이란 인간의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지 못하도록 사회구조 또는 사회제도에 의해 가해지는 형태의 폭력을 뜻한다. 그 예로는 제도화된 엘리트주의, 자민족중심주의, 계급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연령주의, 이성애주의 등이 포함된다(Galtung, 1969).

구조적 폭력 개념의 또 다른 기원은 남미 해방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의사이자 인류학자이며 국제보건활동가인 폴 파머(Paul Farmer)는 남미 해방신학의 전통 위에서 구조적 폭력이란 빈곤, 인종주의, 성차별처럼 극심한 사회 불평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죄악의(sinful)” 사회구조를 지칭한다고 주장한다(Farmer, 2004a). 파머에 따르면, 구조적 폭력은 질병이 사회 내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감염되도록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다(ibid.).

결국 그 개념의 기원이 어느 쪽이든 간에, 구조적 폭력은—비록 구체적인 가해자를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막강한 제도화된 힘으로써 특정 집단에 속한 개인의 선택과 능력을 제한하며 궁극적으로 억압과 차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억압의 사회적 기제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다.

지금까지 의료인류학자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회를 대상으로 구조적 폭력으로 야기된 인간의 고통과 질병 경험에 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해왔다(Bourdieu et al., 1999; Bourgois, 2003, 2012; Cohen, 1998; Farmer, 1999, 2006; Schepher-Hughes, 1992). 그러나 구조적 폭력 개념이 지니고 있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해, 실제로 학자들이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칭하며 강조한 구체적인 지점들은 조금씩 다르다.

부르고이의 경우 뉴욕 할렘가에서 싸구려 마약을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이민자 사회에 대한 연구 속에서, 어떻게 인종차별 및 빈곤의 환경이 구조적인 폭력으로 작용하며 궁극적으로 이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폭력 및 질병을 자초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끄는가를 밝힌다(Bourgois, 2003). 나아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헤로인 중독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르고이는 노예제의 경험 및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화가 어떻게 백인과 흑인 헤로인 중독자들이 다른 방식의 일상을 살아가도록 이끌며 결과적으로 다른 형태의 질병 위험에 노출시키는가를 분석한다(Bourgois, 2012).

이처럼 부르고이가 주목한 구조적 폭력이 빈곤과 질병을 양산하는 인종차별의 문제라면, 쉬퍼-휴즈(Schepher-Hughes)가 브라질의 높은 영아사망률의 원인으로 강조한 구조적 폭력의 문제는 빈곤과 더불어 나타나는 젠더 이데올로기 문제이다. 브라질의

빈민촌에서 죽어가는 어린 아기들을 눈물 없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엄마들은 서구인의 관점에서 볼 때 “모성도 없는 매정한” 사람들일 수 있다. 그러나 빈민촌 엄마들은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생존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에게 양육 투자를 집중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브라질의 가난한 엄마들은 모성이 결핍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아기들로부터 감정적으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다(Scheper-Hughes, 1992).

또한 구조적 폭력 개념을 의료인류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부각시킨 파머에 의하면, 구조적 폭력은 한정된 지역 사회의 빈곤 문제를 넘어선 전 세계적인 국가 간 불평등과 식민주의의 산물이다. 파머는 아이티, 페루, 러시아, 르완다, 멕시코 등지에서 의료 활동가로 진료를 수행하면서, 어떻게 전염병이 독재, 빈곤, 성차별, 강대국의 이권, 식민주의의 유산과 결부되어 불평등하게 확산되는지—즉 어떻게 다양한 형태의 구조적 폭력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질병 감염의 기회를 증가시키고 또한 치료의 기회를 박탈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해 왔다(Farmer, 2004b).

구조적 폭력 개념은 질병과 건강 문제에 관심을 둔 인류학자들이 소규모의 지역 사회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전 세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높다. 그러나 이 개념은 한 가지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형태의 문제들을 동시에 포괄함으로써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문제 지점들을 단순화시키고, 그 해결 방법을 논하는 데 있어서도 모든 것을 구조적인 원인에 돌림으로써 구체적인 개입 지점에 대한 분석력을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Bourgois and Scheper-Hughes, 2004). 따라서 전 세계의 보건 문제를 지역 사회의 특수성의 맥락 속에서 다루어 온 의료인류학의 전통 속에서 보자면, 구조적 폭력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반면 구체적인 사례 분석에 있어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이론적 보완 및 정교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2. 체현(embodiment)

구조적 폭력을 연구해 온 인류학자들이 인간의 질병과 건강 상태를 결정짓는 외부적 힘을 파악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면, 다른 일군의 학자들은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정치적 폭력과 같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인 힘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회문화적 과정을 통해 개인의 고통이나 질병으로 인식되고 경험되며 또 서로

다른 반응 양상을 생성하는가에 주목해왔다. 후자의 접근 방법과 관련하여, 체현(embodiment)은 이처럼 외부의 구조적인 힘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경험과 질병 상태로 변환되며 의료적 실천을 양산해 내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개념이다. 체현 개념은 무엇보다 개인과 바깥세상 간의 상호작용(즉, 지각과 실천) 방식이 근본적으로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또한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데 주목한다.

인류학에서 인간의 신체에 대한 관심은 여러 비서구 사회에 대한 연구 속에서 일찍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신체가 주된 연구대상으로 등장한 것은 더글라스(Douglas, 1966, 1970)에 의해서이다. 그녀는 아프리카 콩고를 포함한 몇몇 비서구 지역에서의 현장연구를 통해 인간 신체의 부분들이 각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관을 드러내는 우선적인 상징물로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녀는 한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각자가 처한 사회적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신체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상징으로서의 신체에 대한 연구는 더글라스 이후에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데, 예컨대 중국의 자살 논의에 있어서도 농민의 자살 혹은 사회적 약자의 '죽은 몸'이 드러내는 저항성에 대한 분석이 그 대표적인 예일 수 있다 (Lee and Kleinman, 2000).

푸코(Foucault, 1973, 1977)의 작업은 다른 많은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류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제 신체는 사회적 상징을 넘어 담론/권력의 효과이자 사회적 구성물로서 간주되기 시작하였다(대표적으로, Martin, 1987, 2007).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의 목표는 권력의 효과이자 사회적 실체가 각인된(inscribed) 텍스트로서의 신체를 해독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농촌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자살 행위는 이 지역의 지배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자살에 관한 사회적인 담론이 여성에게 특정한 신체적 욕망과 태도를 각인시킨 결과일 수 있다. 푸코의 논의는 인간의 신체가 생물학적인 실체를 넘어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구성물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담론/권력의 효과로 환원시킨다는 점에서, 푸코의 시각은 개인의 서로 다른 경험(experience)이나 행위성(agency)에 주목하는 학자들에게는 불충분한 면이 있다. 담론/권력의 규정적 힘에 의해 구성된 산물로서의 신체 개념은 살아온 경험으로서의 신체(lived body)와 그러한 경험에 근거한 행위 선택의 과정을 고려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체현은 인간의 경험(lived experience)과 그러한 경험에 근거한 행위가

무엇보다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개인과 문화 간의 상호작용—즉, 외부에 대한 지각(perception)과 실천(practice)—의 출발점으로서 신체에 라는 개념은 메를로-퐁티(Merleau-Ponty)와 부르디외(Bourdieu)의 이론적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메를로-퐁티에 따르면, 인간의 지각은 자기 자신의 바깥에 있는 물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과 바깥 물체를 구별하기 이전에 이미 문화적 공간 속에 놓여있었던 신체로부터 출발한다(Merleau-Ponty, 1962). 즉, 이미 출생과 더불어 문화 속에 배태된(embedded) 신체는 바깥 물체를 지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초기 단계에 개입하는 주체이다. 한편, 부르디외(1977, 1984)는 아비투스(habitus) 개념을 통해, 인간의 실천이 출생과 더불어 획득하게 되는 “사회적으로 정보가 부여된 신체”(the socially informed bod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부르디외에 따르면, 신체는 사회의 상징재료이거나 권력의 담지체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사회적 실천의 가능한 목록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실천의 장소(the locus of social practice)이다.

메를로-퐁티와 부르디외의 이론적 논의에 기초하여, 쏘르다스(Csordas, 1993)와 같은 인류학자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행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체현의 패러다임(paradigm of embodiment)을 제안한다. 체현의 패러다임은 인간의 신체를—마치 더글라스나 푸코의 입장처럼—문화가 각인되어 있는 어떤 텍스트로 바라보고 해석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신체 그 자체가 문화의 존재론적 근거라고 간주한다. 즉, 한 개인이 외부에 대한 지각을 시작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에 현존하고 주변 상황에 반응하는 전 과정이 인간의 신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 내의 인간 신체가 지니는 경험적 조건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국 농촌 사회를 조건지우는 핵심적인 구조적인 요소들과 그러한 요소들이 어떠한 신체적·문화적 과정 속에서 궁극적으로 개별 여성들이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왔는가를 ‘구조적 폭력’ 및 ‘체현’ 개념을 활용하여 분석해볼 것이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 하북성 북부에 위치한 마을 전강촌(前江村)⁴⁾ 및 주변 세 마을에 거주하는 남녀 주민들(대부분 농민이지만 의사나 교사 등 비농업 종사자 포함), 그리고 북경의 NGO 한 곳과 병원 한 곳에서 실시한 자살예방프로그램의 참가자(자살시도자, 정신과 의사, 간호사 및 NGO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나 장기간의 현지 거주와 다양한 방식의 자료축적이 요구되는 인류학적 연구의 특성으로 인해, 본 논문을 위한 연구는 연구자가 2004년부터 2006년, 그리고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국 자살 현상에 관한 장기간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로서 이루어졌다. 특히 본 논문에서 인용된 자료의 대부분은 전강촌에서 획득된 것이다.

중국 국가 통계에 의하면, 전강촌이 속한 현(縣: 성급 아래의 행정구역)은 하북성 중에서도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다(2006년 기준, 1인당 연간 평균 순수입 한화 약 25만원)(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그러나 전강촌은 하북성의 주요 현(縣) 및 마을들을 잇는 공공도로 근방에 위치하여 주변 마을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구당 평균 수입이 높은 편에 속한다. 가구 수는 약 600여 가구에 이르고 전체 인구는 공식적으로는 2800명 정도이지만, 상당수의 젊은 사람들이 짧게는 1-2년, 길게는 10년씩 외지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정확한 마을 인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전강촌의 주민들은 소수의 교사 및 근처 행정기관에 출퇴근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⁵⁾ 이들은 농업에 종사하거나 근처 탄광에서 날뎠을 일을 하거나 혹은 가까운 공공도로를 이용하여 근처 오일장에 물건을 판매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강촌 및 주변 마을의 민족 구성은 한족과 만주족이

4) 연구참여자의 보호를 위해, 본 논문에서 사용된 지역명 및 인명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5) 중국에서 '농민'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는 직업 구분에 의한 명칭이라기보다는 공산당 정부가 인구통제 및 자원할당을 위해 '비농업호구'에 대비하여 '농업호구'로 구별 지은 사람들을 뜻한다. 현재는 개혁개방 이후 잦은 이주 정책 변화 속에서 두 집단 간의 관계가 매우 복잡해졌지만,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비농업호구'를 가진 사람만이 도시에 거주할 수 있었으며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 양로, 의료, 교육 등의 사회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반면 '농업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대학을 가거나 군대에 입영하는 등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농업호구'를 가진 도시민들이 누리는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었다.

반반씩 혼합되어 있다. 만주족은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중 하나이지만, 이 지역의 만주족은 일찍이 한족 중심의 국가 정책 및 한족과의 잦은 문화교류 속에서 고유의 민족 언어와 관습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며 현재는 한족과 별 다른 없는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를 위해 장기간의 인류학적 현장연구가 실시되었으며, 현장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관찰, 비공식적 면담, 심층면담, 생애이야기 수집, 초점집단 연구, 문헌 분석 등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시에 사용되었다. 장기간의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과 같은 민족지적 방법들(ethnographic methods)은 농촌 여성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상황과 과정을 쉽사리 몇 가지 요인들로 단순화시키지 않으면서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먼저, 연구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위에 언급된 방법들을 활용하여 집중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주로 전강촌에 거주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농사일, 정치적 회합, 경제활동, 오일장, 수공예품 제작, 학교생활, 혼례와 장례, 질병치료 등등 관련된 다양한 일상생활의 영역에 참여하였으며, 마을 주민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면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젠더 역할과 관계를 관찰하였다. 이 과정 속에서 연구자가 접하게 되는 많은 주민들과 비공식적 면담이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필요에 따라 노트에 기록되거나 허락을 받아 녹음하였다.

둘째, 마을 주민들의 자살과 젠더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확인하고 심층면담을 위한 주요 문항을 마련하기 위해, 연령, 성별 및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각각 6-8명으로 구성된 6개 집단을 구성한 뒤 초점집단 연구를 수행하였다. 초점집단 연구를 수행할 때 참여자들의 발화는 모두 녹음되었으며, 현지 사투리를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전사되었다. 초점집단 연구를 통해 연구자는 마을 주민들 중에서 자살 시도를 했던 주요 인물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또한 자살 및 젠더에 관한 기본적인 지역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셋째, 연령, 성별 및 마을 내 친족관계를 고려하여 남녀 각각 25명, 37명을 대상으로 자살 및 젠더에 관한 개인적 인식과 구체적인 경험담을 묻는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원래 남녀 각각 25명씩을 피면담자로 선정하였으나, 연구자가 마을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살 관련 경험을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여성 주민들로 인해 여성 피면담자가 추가되었다. 이와 더불어, 전강촌 및 주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여성 12명에 대해서 따로 생애이야기(life story)를 수집하였다. 심층면담 및 생애이야기 자료는 모두 녹음기로 녹음되었으며, 곧바로 현장에서 전사되었다. 심층면담의 결과 총 33건의 자살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

넷째, 마을 주민들이 보는 신문이나 잡지, 기타 문건 중에서 자살이나 젠더 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을 따로 스크랩하여 분석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두세 달에 이르는 기간 동안 매해 전강촌을 재방문하면서 중국 농촌의 자살 현상에 관한 추가적인 면담과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추가 조사는 급격히 변화하는 중국 농촌의 상황 속에서 과연 자살에 관한 지역적 개념과 태도가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과거에 수행된 자살과 관련된 지역적 요인의 분석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었다. 추가 조사 기간 동안 수행한 연구 결과들은 특별히 본 논문을 위한 자료 분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현지 보조원의 도움을 받아 전사된 녹음 자료를 현지에서 검토하고 코드화 하였으며,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따라 일차적 가설들(primary hypotheses)에 부합되지 않는 발견된 사실들로부터 새로운 가설들을 지속적으로 생성해나가면서 이후의 면담과 참여관찰을 진행하는 방식을 따랐다. 코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기본적인 개념들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하위 목록을 만들어가는 방식을 택했다.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IRB의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IV. 연구결과

1. 구조적 폭력: 도농 빈부격차와 가부장적 억압

중국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모택동의 사망 이후 1978년부터 약 30년 간 지속되어 온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이 농촌 지역에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즉, 개혁개방 정책은 결과적으로 도농 간의 격차를 확대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위기감을 확대시키고 불안을 재생산해왔다는 것이다. 실제로 진강촌 마을의 주민들은 농민으로서 경험하는 빈곤의 고통에 대해서 자주 호소한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과거와 달리 이제 농민은 현금이 없어서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도 어려우며,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도 어렵다.

아들 한 명을 혼인시키기 위해 적어도 삼 만 위안(2010년 기준, 한화 약 육백 만 원)이 있어야 근방의 젊은 여성이 시집을 오려고 하지만, 농사를 짓는 것만으로 이 돈을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가족 중에 누가 병이 들면, 제대로 된 병원을 방문하기보다는 가까운 마을 내 의사에게서 약을 사 먹거나 들리는 소문에 따라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保健食品)’을 사먹는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의사와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 방문하는 것은 무엇보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쉽지 않으며, 혹시라도 가족 중에 누가 입원이라도 하게 된다면 곧바로 커다란 빚더미를 맞이할 각오를 해야 한다. 관찮은 교사들은 하나 들썩 더 나은 조건을 향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마을의 학교는 문을 닫거나 점차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도 쉽지 않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좋은 중고등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비싼 등록금과 기숙사비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들이 빈곤감을 심하게 느끼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개혁개방 이전의 집단생산체제로의 회귀를 갈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과거보다 현재가 훨씬 더 낫다고 표현한다. 진강촌 주민들에게 개혁개방 시기가 더 낫다는 판단은 생생하게 지각되는 구체적인 삶의 경험담으로 표현된다. 모택동 시기를 살았던 주민들은 1980년대 이전에 그들이 무엇을 먹을 수 있었고, 무엇을 입을 수 있었으며, 어떠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는지 지금과 비교하여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 혼인하는 여성들은 낡은 자전거 위에 단지 한 채의 이불과 젓가락 한 벌만을 가지고 시집왔을 뿐이다. 심지어 마을 주민들 몇몇은 중소분쟁⁶⁾ 이후, 소련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공산당이 행한 가혹한 정책 속에서 허기에 굶주리다 못해 독이 있는 풀뿌리를 캐어먹다가 사망했던 이웃들을 기억하곤 했다.

반면 현재 중국 농촌 주민들은 적어도 이제 “먹을 것으로 인한 고민은 전혀 없다

6) 1956년 소련 공산당 제20차 대회 이후 소련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 공산주의 이념의 원칙적인 문제에 관해 벌인 논쟁. 소련이 과거에 약속했던 지원을 중국에게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축적된 불만이 중국 측에서 제기되었으며, 이 논쟁은 알바니아 문제, 소련 공산당 강령, 후진국 민족해방운동 성격 규정 등을 둘러싼 전면적으로 확대되었다.

(沒有吃的問題)”는 데 동의한다. 그 뿐 아니다. 젊은이들은 빌린 자동차를 타고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며 텔레비전, 세탁기, 심지어 오토바이를 가지고 새 살림을 시작한다. 과거에 새 옷을 입을 수 있었던 때는 오로지 춘절(春節, 중국의 설날) 때뿐이고 두 개의 삶은 달같은 오로지 생일에만 사치품처럼 맛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명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일장에서 언제든지 고기를 구할 수 있다. 물론 아직도 농민들에게 마당에 가득한 채소대신에 굳이 고기를 사 먹는 일은 사치이자 낭비로 인식되곤 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전강촌의 농민들이 경험하는 빈곤의 문제는 인류학자 폴 파머가 제기한 ‘구조적 폭력’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Farmer, 2004a), 절대적인 빈곤의 문제라기보다는 중국 정부의 도농차별 정책 및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강화되는 도시와의 격차 속에서 경험되는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이다. 파머가 아이티에서 목격한 것처럼 끼니를 때울 식량이 모자라고 깨끗한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주민들은 병원에 갈 수 없고,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없고, 또 무엇보다 혼인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경험한다. 그리고 몇몇은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다.

상대적인 빈곤감은 비단 중국 농민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주의의 경험과 농민으로서의 특성으로 인해 중국 농민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인식된다.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모든 농민이 정책 상 평등하게 간주되었을 뿐 아니라 계획경제 속에서 가구 별 격차가 크지 않았던 사회주의의 유산 속에서 도시민 뿐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간에 나타나는 눈에 띄는 경제적 격차를 받아들이기가 힘든 주민들이 존재한다.⁷⁾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학자 포스터가 멕시코 농민 연구를 통해 제기한 바와 같이 토지에 귀속된 농민들이 갖고 있는 ‘한정된 재화의 이미지’(image of the limited good)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이 획득한 자원은 곧 나에게 손실을 뜻한다는 관념—의 영향으로 인해, 이웃으로부터의 ‘뒤처짐’은 대개 회복될 수 없는 실패로 간주되곤 한다(Forster, 1965).

결국 현재 전강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사회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도시 주민들과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에 대한 좌절과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7) 물론 도시민 및 이웃과의 격차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은 이 지역에 시장경제가 더욱 보편화되면서 점차 익숙한 경험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설령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격차로 인한 농촌 주민들의 좌절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와 동시에 그동안 자신과 별 차이 없던 이웃들이 하나 둘 나보다 월등한 경제적 수준을 누리게 되는 것을 심리적으로 용인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미 밥을 굶지 않는다는 것이 인간적 삶의 기준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회적 공간에서, 싼 농산품 가격으로 인해 육체적인 생존만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대로 살고 있다”(好過日子)고 잘 느끼지 못한다.

〈사례1〉

미야오는 2006년 36세의 나이로 수면제를 먹고 사망했다. 당시 미야오는 거의 실명에 가까운 남편과 딸 아들 각각 하나씩을 두고 있었다. 미야오의 주검이 발견된 날 아침, 그녀의 집을 방문한 마을 의사는 죽음의 원인이 자살이 아니며 수면제 중독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그 진단은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물론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자살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야오의 남편에 대해 이웃 사람들에게 종종 “죽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곤 했다. 그는 몇 달 전 채굴 일용직 친구를 따라 광산 갱도에 들어갔다가 그만 폭발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거의 완전히 상실했다. 아직 공식적으로 고용이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로부터는 당연히 어떠한 보상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미야오는 극도로 우울해졌다. 주변 마을에 폐품을 주워서 판매하는 낱품팔이 일을 시작했지만,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학비조차 마련할 수가 없었다. 여자 홀몸으로 농사일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얼마 후 이웃집에 사는 남자는 미야오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자주 농사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곧이어 미야오가 그 남자와 부정(不貞)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가득 퍼졌다. 미야오는 남편의 사건 이후 종종 “삶이 의미가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표현을 하곤 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웃집 남자와의 소문과 주변 여자들의 경멸과 호기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인해 더욱 힘들어했다. 어느 날, 그 이웃집 남자의 부인이 미야오를 찾아와서 자기 남편을 유혹하지 말라며 큰 소리로 비난을 퍼붓고 돌아갔다. 그리고 사흘 후 미야오는 집 안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미야오의 사례에서 나타나듯, 빈곤은 종종 자살의 중요한 원인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로 자살까지 이르는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남녀의 성별 분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사회에서, 남편의 갑작스러운 장애와 학교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의 존재는 미야오에게 다른 경제적 수단을 고려할 틈도 주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온 가족을 가난으로 몰아넣는다. 더욱이 미야오가 늘 울면서 호소했듯이, 부모를 일찍이 잃은 고아인 그녀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도와줄 친척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와 그녀 가족이 고통 받은 빈곤의 문제는 개인적인 불운이라고 보기에 매우 구조적이다. 만일 채광업체에서 남편의 폭발사고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했더라면, 만일 중국 정부가 일용 노동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장 장치를 당시에 만들어 놓았더라면, 만일 개혁개방 이후에도 기존의 마을 내 상부상조 기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다면, 혹은 만일 가난하거나 갑작스러운 삶의 위기를 맞은 농민들에 대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이 있었다면, 미야오는 어쩌면 조금 더 삶의 이유를 찾았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미야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야기한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이웃집 남자와의 혼외관계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경멸어린 태도였다는 점이다. 남편의 장애와 잇따른 빈곤으로 고통 받는 미야오를 결국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은—사실 여부와 상관없이—부정(不貞)한 여자라는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분노와 수치심이었다.

미야오의 사례에도 나타나듯, 농촌 여성들을 자살로 이끄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조적 폭력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억압이다. 사회주의 혁명을 겪으며 다른 어느 나라보다 법적으로 남녀평등이 구축되어 있는 중국이지만, 개혁개방 정책 이후 기존의 남녀평등을 향한 국가적 규제가 사라진 이후, 여성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가부장적 억압은 다양한 형태로 농촌 마을에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하였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Lee 2012 참조). 그 억압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남편과 시가죽에 대한 순종을 강요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도 강하게 남아있고, 물리적인 가정폭력도 드물지 않으며,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극소수이긴 하지만) 돈을 받고 파는 악습도 암암리에 허용된다. 또 개혁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경제적 능력을 가진 남편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제3자 문제”(第三者問題)—즉, 혼외관계의 문제도 적지 않다. 중국의 마을에서 남편의 혼외관계는 단순히 애정의 문제를 넘어 대개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빈곤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한 위험 요소로 나타난다.

〈사례2〉

샤오진은 딸이 둘 있는 엄마로, 2000년 34살의 나이에 이 지역에서 여성들이 두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간수(滷水)를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그녀는 바로 병원에 옮겨져서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만성적인 위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이 죽고자 했던 이유가 남편의 혼외관계 때문이었다고 말한다. 남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를 거부했지만, 이웃 사람들은 그의 혼외관계에 대해서 대체로 의심하지 않았다. 샤오진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남편이 혼외관계의 탓을 항상 그녀에게 돌렸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남편은 샤오진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만날 수밖에 없다면서 혼외관계를 정당화하곤 했다.

〈사례3〉

단단은 1984년 29살의 나이에 농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그녀가 시집 온 남편의 가족은 마을 내에서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편에 속했다. 그녀는 기름도 친정에서 가져올 만큼 시집에서 아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 가지는 가장 큰 불만이자 고통의 원인은 남편의 폭력이다. 남편은 흑시라도 바깥에서 아내의 말버릇이나 행실에 대해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집으로 달려와서 소문의 사실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무작정 단단에게 신체적인 폭력을 휘둘렀다. 더욱이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 때마다, 시어머니와 시아주머니는 덩달아 남편의 폭력에 가세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단단이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벌어졌다. 첫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해본 적이 없는 단단은 남편으로부터 두 번째 아들을 낳으면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친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둘째 아들을 낳은 뒤에도 남편은 어린 두 아들을 쳐두고 가버리면 누가 아이들을 돌보냐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너무 화가 난 단단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바닥에 내던지며 남편에게 화를 내었고, 그 모습을 보자마자 남편은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식칼을 가져와서 단단의 허벅지를 찔렀다. 지금도 10센티 이상의 상처가 그녀의 허벅지에 남아 있다.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단단은 바로 농약을 마시고 죽기를 시도했다.

여기서는 몇 개의 사례 밖에 소개할 수 없지만, 전강촌에서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의 대부분은 샴오진이나 단단이 경험한 것과 같은 가부장적 폭력으로 인해 “죽고 싶다”(想死了)는 마음을 갖게 된다. 대부분의 자살과 자살 시도가 혼인한 여성에게서 발생한다는 점은 그녀들의 고통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행복하지 못한 결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 여성 자살의 주된 원인이 배우자와의 다툼으로부터 연유한다고 보고하고 있는 역학 조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예컨대, Zhang et al., 2004). 전강촌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부부 간의 싸움은 종종 언어적 폭력 뿐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부부 싸움이 일단 벌어지면 부인들도 남편들과 마찬가지로 폭력을 사용하곤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언제나 부인이 더 많은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게 된다. 이는 남편이 가진 신체적인 힘의 우월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인의 경우 외지에서 시집 온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에 그녀를 지지해 줄 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반면, 마을 내에서 시집 온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남편의 폭력이나 시가족의 홀대로부터 자유로운 편이다.⁸⁾

2. 체현된 실천으로서의 자살

도농차별에 근거한 빈곤과 가부장적 억압이 중국 농촌의 구조적 폭력으로서 여성 자살을 촉진시키는 환경을 마련해준다면, 여성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주 듣거나 보아 온 직간접적인 자살의 경험들은 농민 여성들이 본인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무의식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도록 이끄는 신체화된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자살 사건들이 대개 빈곤 혹은 가부장적 억압(예컨대, 강요된 혼인이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홀대와 폭력)이 그 이유로 설명된다는 점에서, 왜 현재에도 여성들이 빈곤과 가부장적 억압을 심각하게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자살을 대응 방법으로 떠올리는 지를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8) 남편과 시집의 가부장적인 태도는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의 교류가 늘어나면서 젊은 농촌 여성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자유로운 도시적인 삶을 선망하며, 그 결과 농촌 남성들은 아내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 여자가 귀하기 때문에, 혼인한 여성들 중에서도 대우가 좋지 않다고 아이를 남겨두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점점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며느리가 어린 자식을 남겨두고 떠나게 되면 결국 시어머니가 그 부담을 떠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정신과 의사들은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이 서구의 경우와 달리 “충동적”으로 (impulsively)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해왔다(Phillips et al., 2002). 그러나 전강촌에서 이루어진 현장연구의 결과들은 농촌 여성들의 자살 행위에서 발견되는 충동성이 종종 설명되듯 이들 여성 개개인의 성격적 특징이나 도덕적 자질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살이 농민 여성들에게 체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특정 상황에 직면할 때 무의식적이고 순간적으로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세계적인 자살 연구자인 데이비드 레스터(David Lester)는 그의 책 『학습된 행위로서의 자살』(원제: Suicide as a Learned Behavior)에서 자살은 “스트레스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며... 자살이라는 방법의 선택은 어릴 때의 경험과 문화적 태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Lester, 1987: vii). 전강촌과 주변 마을에서 이루어진 현장연구 결과는 레스터의 주장을 상당히 지지한다. 즉 자살은 전강촌 및 주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익숙한 사건으로, 남녀 할 것 없이 연구자가 만나 본 거의 모든 마을 주민들이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 사람 중에 자살하거나 자살 시도한 이야기를 최소 한 사람 이상 알고 있었다. 전강촌의 한 간부의 말에 따르면, 약 사 오십 가구가 밀집해 있는 마을 내 한 거리에서만 1998년에서 2004년까지 총 6년 간 무려 25명이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그 중 7명이 사망했다. 7명의 자살 사망자라는 숫자는 마을 주민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연간 자살률로 환산해 본다면, 10만 명 기준에 41.7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이다.⁹⁾ 이 간부는 각각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지만, 25명의 자살 시도자 중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하였다.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 중에 자살자가 있는 사람이 중요한 자살위험군이라는 사실은 자살을 연구하거나 예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강촌이나 주변의 마을처럼 산간지역으로서 외부 사회로부터 매우 폐쇄적이면서도 마을 내 가구들 사이에는 정보의 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에서는, 이웃집에서 발생한 자살 사건이 마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의 자살을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게 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주변 환경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살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마을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살 행위가 선택되어지는 맥락과 구체적 방법 및 효과들을 자신의 신체 안에 각인하게 된다. 특히 여

9) 전강촌이 중국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확인되어 온 중국의 자살률에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어쩌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중국 자살 통계가 매우 축소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의문을 갖게 한다.

성의 자살 사건이 더 많을 뿐만 아니라,¹⁰⁾ 여성의 경우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¹¹⁾ 나아가 ‘강인하지 못한’ 여성의 자살 행위가 남성보다 사회적으로 더 용납되기 때문에, 마을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응 방식으로 체현하게 된다.

〈사례4〉

밍웨이는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2003년에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다행히 빠른 응급 처치로 생명을 건졌다. 친정어머니의 생신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안 밍웨이는 류머티즘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위해 오리털 잠바를 사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밍웨이는 바닥 깔개를 만들어 매월 200위안(2003년 기준, 한화 약 삼 만원)을 벌고 있었고, 남편은 마을의 의사로 다달이 100위안 정도를 벌었다. 두 사람의 수입은 모두 남편이 관리하고 있었다. 밍웨이가 사정을 이야기하며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남편은 “돈이 없다”며 그녀의 요청을 거절했으며 그녀는 충격에 휩싸였다. 실제로 남편은 수중에 돈이 없었다. 그동안 모은 돈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빌려줬고, 그의 환자들은 외상으로 치료를 받은 뒤 아직 돈을 갚지 않고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밍웨이는 남편에게 외상 빚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편은 곧 설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빚 독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요구를 다시 거절했다. 남편의 반복되는 거절에 직면하여, 밍웨이는 순간적인 절망과 충격으로 집 밖으로 달려 나가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했다.

면담 당시 밍웨이는 자살 시도로 즉각 병원에 호송된 이후 입원 치료를 막 마친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다. 후회의 이유를 물으니, “아이가

10) 중국 정부가 1990년대 이전의 통계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현재 직간접적으로 접근 가능한 통계 자료들은 190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는 적어도 약 백 년의 기간 동안 여러 비도시 중국 문화권 지역에서 비슷하게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높은 자살률을 기록해왔다는 사실을 드러낸다(Yap, 1958; Wolf, 1975).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 여성의 높은 자살률이 비단 최근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11) 개혁개방 이전의 집체생산 시기를 살았던 여성들(대체로 40대 이상인 여성들)의 경우,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혼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중국은 법률상으로 여성의 이혼이 남성의 이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지만, 집체시기에 여성이 이혼하기 위해서는 생산대대(일반적으로 마을에 상응하는 집체의 조직 단위) 간부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간부는 거의 다 마을의 친족 성원이었기 때문에, 친족의 입장에서 남편과 시가족의 편을 들어 여성의 이혼을 쉽게 동의해주지 않거나 오히려 이혼하고자 하는 여성을 혼계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있는 엄마로서 자살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했다”고 했다. 어떤 감정으로 죽을 결심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아픈 엄마에게 생일날 옷 한 벌 해 줄 수 없는 자신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밍웨이의 경우 그녀의 자살 시도 동기와 그 시도에 대한 후회가 모두 사회에서 주어진 딸 혹은 엄마로서의 역할과 의무감 때문이라는 점은 흥미롭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농촌 여성의 자살 시도 사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즉, 중국 농촌 지역에서 여성이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맥락 속에는 거의 언제나 자신이 가족이나 마을의 성원들에게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로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이 결부되어 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말했을 때, 밍웨이는 남편이 실제로 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남편이 그저 돈을 주기 싫기 때문에 없다고 둘러댔 뿐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과거에 비슷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고, 또한 밍웨이와 남편의 사이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왜 그녀가 이러한 추측을 하게 되었는지 연구자는 무척 의아했다. 그러나 마을의 여성들은 밍웨이의 추측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마을 여성들은 꽤 많은 남편들이 아내가 친정 가족들을 위해 한 푼이라고 쓰는 것을 싫어하며 심지어 돈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주민들의 인식이 실제로 얼마나 사실인가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겠으나(예컨대, 밍웨이의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밍웨이의 추측은 마을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시집 온 여성’에 대한 주민들의 가부장적인 사고 및 태도를 반영하고 있었다.

밍웨이에게 어떻게 ‘자살’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렸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바로 대답을 하지는 못했지만 얼마 후 “어렸을 때 주변에 살던 친척 중 한 명이 남편과 다투다가 독약을 먹고 죽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을 봐서 그런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자살을 시도한 농촌의 여성들에게 “왜 죽기로 결심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이 “그냥,” “잘 모르겠다,” 혹은 “어렸을 때 이모(혹은 언니, 엄마, 고모, 할머니)가 죽으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을(혹은 살구씨를 먹는 것을, 약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등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밍웨이는 마을에서 자살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지면의 한계 상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기는 어려우나, 자살을 시도한 여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살 사건을 자주 목격해왔으며, 이들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여성 자살 사건은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강요된 결혼, 남편 혹은 시어머니의 홀대나 극심한 빈곤이 원인으로 나타난다. 부부싸움은 가장 대표적이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다가 약을 먹고 죽은 경우라든지, 원하지 않는 남자에게 시집을 간 뒤 불행을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경우,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도 좋다면서 독풀을 먹고 죽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자주 언급된다.

물론 빈곤이나 가부장적 억압과 관련된 사례 이외에도, 정치적인 사건과 연루된 자살 이야기도 존재한다. 예컨대, 전강촌 옆 마을의 한 여성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모택동 사진이 있는 부분의 신문지를 사용하여 신발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공개적인 인민재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 치욕감을 이기지 못해 약을 먹고 자살했다.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특별히 많은 자살 사건이 언급되는데, 이는 당시의 가혹한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혼외연애와 같은 비밀스럽고 사적인 경험들이 노골적으로 폭로될 뿐 아니라 강제적으로 수치심이 요구된 것과 관련된다.

밍웨이의 자살 시도는 어떤 측면에서 터무니없어 보일 정도로 ‘사소한’ 이유에 의한 것처럼 여겨진다. 마을 사람들도 젊은 여성들이 별 것도 아닌 “사소한 가정 문제”(家庭小事)로 자기 목숨을 끊으려 한다며 혀를 찬다. 그런데 과연 밍웨이에게도 그것이 ‘사소한’ 문제로 느껴졌을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오해와 추측은 일견 얼토당토않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한 인식이 단지 밍웨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이 지역의 상당수의 여성들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회과학적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즉, 농촌의 여성들이 남편의 태도에 대해 부정적인 가능성을 먼저 가늠하는 까닭은 이 사회가 축적된 경험 속에서 암암리에 여성들을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다시 말해, 밍웨이나 다른 농민 여성들의 태도는 친정집을 방문하거나 혹은 친정어머니에게 선물을 하는 것조차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허락받을 수 없었던 농촌에 만연한 가부장적 문화의 지속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국 자살 현상에 관해 그동안 정신의학적 내지 사회학적 접근 방법으로 설명되지 못한 부분들을 인류학적인 현장연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의 독특한 성별·지역별 패턴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국 농촌 여성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도농 차별적인 국가의 정책 속에서 친족 관계 외에

는 어떠한 사회안전망도 가지지 못한 농민들은 사회경제적 곤란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 동시에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의 확산 및 공산당에 의한 통제의 약화는 그동안 억눌려있었던 다양한 형태의 가부장적 억압을 다시 살아나게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연구자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도농 차별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가부장적 억압은 농촌 여성이 자살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강력한 구조적인 폭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중국 농촌의 여성들은 삶 속에서 경험한 빈번한 여성 자살 사건 속에서, 빈곤이나 가부장적 억압 상황에 직면하여 나타나는 여성의 자살 행위에 대해 체현된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자신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살을 선택 가능한 대응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당수의 여성들은 죽음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충동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중국 농촌의 여성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질병이나 사고, 남편의 혼외관계나 가정폭력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에 의해 빈곤 상황에 갑작스럽게 노출되는 여성들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가정 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살수단(예컨대, 농약과 간수)에 대한 통제와 더불어, 농촌 여성들이 일상 속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를 자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예방 및 위기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투고일자: 2013년 10월 29일 / 수정논문 : 2013년 11월 30일 / 게재
확정 : 2013년 12월 8일)

참 고 문 헌

- 河北省人民政府辦公廳. 2007. 『河北經濟年鑒』. 中國統計出版社.
- Bou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ourdieu P., et al. 1999. *The Weight of the World: Social Suffering in Contemporary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Boudieu P. 1984. *Distinction: A Social Critique of the Judgement of Taste*. New York: Routledge Kegan & Paul.
- Bourgois P. 2003. *In Search of Respect: Selling Crack in El Barrio*. Cambridge: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 Bourgois P. & Schonberg J. 2009. *Righteous Dopefien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Bourgois P. & Scheper-Hughes, N. 2004. "Comments to Paul Farmer's An Anthropology of Structural Violence". *Current Anthropology*, 45(3): 317-318.
- Cohen L. 1998. *No Aging in India: Alzheimer's, the Bad Family, and Other Modern Thing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sordas T. J. 1990. "Embodiment As a Paradigm for Anthropology". *Ethos* 18: 5-47.
- Csordas T. J. 1993. "Somatic Modes of Attention". *Cultural Anthropology*, 8(2): 135-156.
- Douglas M. 1966. *Purity and Danger: An Analysis of Concept of Pollution and Taboo*.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Durkheim E. 1979. *Suicide: A Study of Sociology*. New York: The Free Press.
- Farmer P. 1999. *Infections and Inequalities: The Modern Plagu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rmer P. 2004a. "An Anthropology of Structural Violence". *Current Anthropology* 45(3): 305-325.
- Farmer P. 2004b. *Pathologies of Power: Health, Human Rights, and the New War on the Poo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김주연, 리병도(역). 2009. 『권력의 병리학』. 서울: 후마니타스.
- Farmer P. 2006. *AIDS & Accusation: Haiti and the Geography of Blam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orster G. M. 1965. "Peasant Society and the Image of Limited Good". *American Anthropologist* 67: 293-315.
- Foucault M. 1973. *The Birth of the Clinic*. New York: Tavistoc Publications Limited.

- Foucault M. 1977. *Discipline and Punishment: The Birth of the Prison*, New York: Vintage Books.
- Galtung J.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eertz C. 1973. *The Interpretation of Cultures*, New York: Basic Books.
- He Z, X. & Lester D. 1997. "The Gender Difference in Chinese Suicide Rates", *Archives of Suicide Research*, 3(2): 81-89.
- Kleinman A., et al. (eds.) 1997. *Social Suff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Kushner H. I. 1985, "Women and Suicide in Historical Perspective", *Signs*, 10(3): 537-552.
- Kushner H. I. 1993. "Suicide, Gender, and the Fear of Modernity in Nineteenth-Century Medical and Social Thought", *Journal of Social History*, 26(3): 461-490.
- Law S. & Liu P. 2008. "Suicide in China: Unique Demographic Patterns and Relationship to Depressive Disorder". *Current Psychiatry Reports*, 10: 80-86.
- Lee H. J. 2012. "Modernization and Women's Fatalistic Suicide in Post-Mao Rural China" in Kipnis A. (ed.) *Chinese Modernity and the Individual Psych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ee S. & Kleinman A. 2000. "Suicide as Resistance in Chinese Society". in Perry, E. J. and Selden, M. (eds.) *Chinese Society: Change, Conflict, and Resistance*, 221-240. New York: Routledge.
- Lester D. 1987. *Suicide as a Learned Behavior*. Springfield: Charles C Thomas Publisher.
- Martin E. 1987. *The Woman in the Body: A Cultural Analysis of Reproduction*, Boston: Beacon Press.
- Martin E. 2007. *Bipolar Expeditions: Mania and Depression in American Cultur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erleau-Ponty, M. 196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 Phillips M. R., et al. 2002. "Suicide Rates in China, 1995-99", *The Lancet*, 359: 835-840.
- Qin P. & Mortensen P. B. 2001. "Specific Characteristics of Suicide in China",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03(2): 117-121.
- Scheper-Hughes, N. 1992. *Death without Weeping: The Violence of Everyday Life in Brazil*,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Weber M. 1976. *Wirtschaft und Gesellschaft*, Tübingen: J. C. B. Mohr. 박성환(역). 1997. 『경제와 사회 1』. 서울: 문학과 지성사.
- Wolf M. 1975. "Women and Suicide in China". in Wolf M. and Witke R. (eds.)

Women in Chinese Societ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Yap P. M. 1958. *Suicide in Hong Kong*. Hong Kong: Hong Kong University Press.

Yip S. F., et al. 2005. "Suicide Rates in China during a Decade of Rapid Social Chang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0: 792-798.

An Anthropological Analysis of Suicide Phenomena in China: Focusing on Structural Violence and Embodiment

Hyeon Jung Lee*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Anthropology

Suicide in China has attracted much scholarly attention due to its large scale and the unique gender and regional patterns of the rates. Anthropological field research in rural China,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auses of the unique patterns, which either psychiatric or sociological approach has not sufficiently explained. For this study, different complementary methods in anthropology, including participant observation, informal interviewing, in-depth interviewing, life story, focus group research, and text analysis, were conducted between 2004 and 2013. Obtained data was analyzed, particularly by utilizing the concepts of structural violence and embodiment. To conclude, the high rates of suicide among rural women appear to be an outcome of two factors: first is the increasing urban-rural socioeconomic gap and patriarchal oppression in rural China, which function as important forms of structural violence; second is the embodiment of suicide among rural women as one of the possible responses to difficult situations, which results from the shared experience of frequent female suicide accidents in their life.

Key words: Suicide, China, Gender, Structural violence, Embodiment